

제1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09. 10. 15(목), 14:00~16: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12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이원희 부의장, 유승익, 유승화, 오상탁, 이화숙, 최인규, 김찬영, 이해진, 김관균, 박윤규, 박상호 평의원 (김근태 간사)
- 불참 평의원 : 이순일

4. 회의안건

가. 보고사항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개정: 대학평의위원회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 대우학원 「대학평의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회신 요청
- 2009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나. 의안(심의사항):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약과학연구소” 신설에 따른 별표1 기구표 수정
- 경영대학 “금융공학부” 신설에 따른 별표5 학사과정 수정
- 2009-2학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명시
- 금융공학부 신설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금융공학부 40명 신설, 경영학부 20명 감축, 자유전공 20명 감축)
- 특수대학원의 경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임을 고려하여 휴학기간 산정에 대한 완화 근거 신설

5. 개회선언

의장 이일영 : 재적평의원 13명 중 12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모이고 3달만입니다.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논의사항은

< 간서명란 >

의 장



별로 없고 학칙개정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에 나오겠지만 그 동안 평의원 임기가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획팀장님, 보고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32조 2항에 ‘대학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 대학평의원을 선출하며...’ 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과 32조 3항 ‘대학평의원의 추천을 위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수정된 것, 그리고 34조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라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평의원의 임기만료 30일은 그 동안 정관에는 결원이 생긴 경우 15일 이내 보충한다는 내용만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고, 대학평의원 임기 2년으로의 수정은 의원의 연속성 측면을 보완한 것으로 그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회의자료를 보시면 어제 학교법인으로부터 「대학평의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및 관련 구성단체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의장 이일영 : 「대학평의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기획팀에서 만든 것입니까?

간사 김근태 : 법인에서 온 제정(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여기 계신 분들이 12월 1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한달 전이면 11월 18일까지 새 평의원들이 뽑혀야 하는데 지금 언제 의견을 수렴해서 언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 하던 방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난 두 번 이상 평의원을 선출해서 구성했는데 그것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의견수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첨부된 「대학평의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무엇입니까?

간사 김근태 : 법인에서 보내온 「대학평의원 추천에 관한 규정(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안)이라고 합니다.

의장 이일영 : 평의원회 위촉 권한이 과거에는 총장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인에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간사 김근태 : 추천에 관한 사항은 그 동안 교수회 규칙에 있었으나 규정으

< 간서명란 >

의 장



로 다루는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네, 글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팀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인에서 왔다고 그냥 보여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왜 규정이 되고 총장 권한에 있던 것을 왜 법인에서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내막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의원 유승익 : 김근태 팀장님, 공문에 나와 있는 담당부서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간사 김근태 : 총무팀과 교원팀 입니다.

평의원 유승익 : 법인에서 규정을 만들겠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요청한 곳이 총무팀과 교원팀인가요?

간사 김근태 : 담당부서는 총무팀과 교원팀이며, 구성단체는 교수회와 직원회 입니다.

평의원 유승익 : 담당부서 및 구성단체에 이미 통보가 되었나요?

간사 김근태 : 네, 통보 되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 통보를 오늘 했다는 얘기인가요?

간사 김근태 : 어제 했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회신기한이 언제인가요?

간사 김근태 : 회신기한을 공문에 보시면 10월 2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제 공문을 발송하고 20일까지 의견수렴이 가능할 수 있는지, 아무리 10월 30일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한 일정으로 잡았다 할지라도 상당히 촉박한 일정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공문은 담당부서와 구성단체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제가 알기로는 평의회회가 학교의 총장 밑에 있는 자문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사 김근태 : 네

평의원 유승익 : 그런데 법인에서 평의회관련 규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대학평의원에 관한 것은 정관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인정관에 보시면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것이 제3절 30조부터 38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조항이

< 간서명 란 >

의 장



추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립학교법에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32조를 개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담당부서 및 구성단체에서 총무팀은 직원회와 관계되고, 교원팀은 교수회와 관계가 되겠는데, 학생회는 구성단체 아납니까? 동창회는 아납니까? 평의원회에 나오는 각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도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것 아납니까? 구성단체를 교수회하고 직원회로 국한시킨 게 이상합니다.

간사 김근태 : 그 부분은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그럼 정관을 같이 검토 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모르는데 밖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이에 대하여 총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간사 김근태 :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어제 발생한 것 아납니까? 총장님도 사전에 몰랐던 거 아납니까?

간사 김근태 : 그것까지는 ...

평의원 오상탁 : 공문에 수신인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수신처는 아주대학총장(기획처장,기획조정실장), 아주자동차대학총장(행정지원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32조 1항 대학평의원회 위촉을 보시면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대학평의원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교수회에서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직원회에서 대학교는 5급 이상, 전문대학은 7급 이상의 정규직 원 중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 및 교외인사를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의 구성단위별 정원은 교원 5인, 직원 2인, 학생 2인, 동문 2인, 교외인사 2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대학평의원회 추천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교원선출위원, 직원선출위원의 교수회와 직원회 두 부분만 규정(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동문, 교외인사는 학교장 위촉 또는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는 것입니다.

평의원 유승익 : 규정(안) 제2장 교원 선출위원회 보시면, 선출단위에 대해

< 간서명 란 >

의 장



적시해냈습니다. 11개의 선출단위가 있고, 그 밑에 선출단위 소속 교원의 수에 따라서 1~5인까지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공대 같은 경우에는 학부가 기본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과대학으로 하지 않고 학부를 썼습니다. 그리고 8번을 보시면 경영학부, 인문학부 및 사회과학부가 한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실제론 세 개의 단과대학인데 학부로 전환하여 3개를 하나로 묶어서 한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즉 경영대, 인문대, 사회대 3개 단과대학이 한 단위로 줄었기 때문에 선출위원 정원 규정에 따라 위원선출을 하게 되면 세 개 단과대학은 굉장히 적은 수의 대표만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대의 경우는 훨씬 많은 숫자가 선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선출안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왜 법인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입니까?

간사 김근태 : 규정(안)이 어떤 것이냐 물어봤는데, 이것은 참고(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규정(안) 자체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의원 유승익 : 평의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총장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명을 총장이 하시면 임명에 관한 규정을 총장이 만들어야지 왜 법인에서 만들어 읍니까? 총장님은 여기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신겁니까? 제4조 2항을 보면 전자투표를 하도록 해냈는데, 전자투표는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전자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장 이일영 : 그러면 직원하고 교원은 이렇게 뽑고 나머지는 어떻게 뽑습니까? 동문도 전자투표로 뽑습니까?

간사 김근태 : 정관에 보시면 「동문 및 교외인사를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4개 해당부서인 총무팀, 교원팀, 교수회, 직원회에서 법인에게 각각 보고하는 것입니까?

간사 김근태 : 아닙니다. 기획팀이 발송하고 취합해서 종합된 의견을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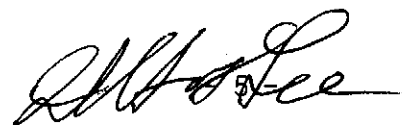
평의원 유승익 : 총장님 보고를 거칩니까?

간사 김근태 : 법인으로 공문으로 발송하며 총장님 결재를 거칩니다.

평의원 최인규 : 갑자기 바뀌게 된 계기를 법인에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

< 간서명 란 >

의 장



니다. 대학평의회에서는 이전에 진행되었던 것들에 문제가 있었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의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일영 :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고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 개정해서 온 것이고, 그 후속으로 추천에 대한 규정(안)을 만들어서 여기 첨부한 겁니다.

평의원 최인규 : 제가 이사회 회의록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에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일영 : 277차 이사회 회의록(2009.8.28) 한 번 읽어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현행 대학평의원의 임기를 타대학의 운영 사례를 비교·검토한 바, 대학평의원의 보다 연속성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학평의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더불어 대학평의원 임기 만료시 후임 대학평의원 선출 기한을 정관에 기재하고자 합니다. 대학평의원 임기를 변경함에 따라 부칙에 경과조치로서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학평의원은 제3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대학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두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는 현행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학칙으로만 위임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재위임하여 정한 것과 우리 규정체계에선 학칙과 규칙은 동격인데 규칙에서 재차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정관 제32조 제3항을 ‘대학평의원의 추천을 위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 규정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격간의 위임은 체계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회와 직원회의 규칙에서, 교수회 규칙을 예로 살펴보면 ‘학칙 제13조에 의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전체 교수들의 참여와 이를 통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라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한 대학평의원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 설치 목적과 다르게 교수회 규칙에서는 대학운영에 대한 참여라는 상위 근거나 위임하지 않은 내용이 규칙으로 자의적으로 제정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행태가 되고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또한 교수회 규칙의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총장이 부의한 사항, 대의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총장 임면과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는데 대부분이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여러 차례 학교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수정이 되지 않아 정관에는 교수회의 원래 취지에 맞게 대학평의원을 선출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정관 개정 후 후속 규정에는 교수회 및 직원회가 대학평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방법만을 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학칙상에 교수회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자의적으로 스스로에 권한을 부여하여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수회 및 직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지는 학교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관 개정 후에는 교수 및 직원 대표 대학평의원을 선출하는 사항만을 학교와 협의하여 규정화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일영 : 사유가 다 있긴 있습니다. 오늘이 대학평의원회 마지막 모임이 될지 한 번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평의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평의원들은 임기가 2년으로 구성이 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은 시작이 되어서 한창 얘기를 하는 중에 이해진 평의원이 들어 오셨는데, 1~3페이지에 있는 보고사항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277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중 특히 제32조의 대학평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는 개정이 있었고, 회의자료에 규정(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출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평의원회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평의원 박윤규 :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교수회의 경영참여권에 대한 것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전반적인 학업에 집중하고 전반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의도가 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의장 이일영 : 네, 그런 쪽이 있겠죠. 법인이 의도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지,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들의 리액션이 아마도 있겠죠.

평의원 박윤규 : 직장에서도 회의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간소화하고 보고

< 간서명란 >

의 장



받을 사항도 될 수 있으면 직접 가서 보고를 받는데 이런 경우는 이중의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 사람을 뽑기 위한 사람을 뽑는 기구 같은 것을 겹겹이 만들어 놓는 게 무슨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장 이일영 : 앞으로 대학평의원 인선에 관여하겠다는 얘기겠죠. 중앙일보 평가결과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근태 : 다음은 중앙일보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전년도 종합평가 15위에서 18위로 3단계 하락했습니다. 총점수는 400점인데, 본교 취득점수는 400점 중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87점을 취득했습니다. 총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육여건 및 재정, 교수연구, 국제화, 평판 및 사회진출도 이렇게 총400점 만점, 4개 영역 38개 지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교수여건 부분에서는 4단계 하락을 했지만 점수는 약 5점 정도 하락을 하였고 평판도 부분은 5단계 하락에 점수는 약 4점 정도 하락 하였습니다. 교육여건 및 재정은 작년도보다 취득점수는 상승을 했지만 등위는 7계단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대학에서 교육여건 및 재정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상승부분과 하락부분을 보시면, 총 38개 지표 중에서 우리 대학이 10개 지표가 상승 했습니다. 상승지표 표내용에 순위변동, 취득점수의 변동을 표시하였습니다. 하락지표는 총 38개 지표 중에서 24개 지표가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판 및 사회진출도를 보면 총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8개 항목 중에서 평판도 7개 항목을 제외한 31개 항목이 정량지표로 되어있고, 평판도만 정성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평판도의 1-7번, 이 부분은 7개 문항 총 85점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총1,050명의 설문평가자(기업체, 외국인기업체, 중소기업, 대기업 등)가 설문평가에 하였다고 합니다. 설문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1등부터 10등까지 점수를 부여합니다. 1등에 선정된 대학은 10점, 2등은 9점 이런 식으로 1점차로 10등까지 점수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9년도 중앙일보 평가 20위까지의 대학들 입니다. 아주대는 종합순위 18위, 전년대비 3단계 하락한 18위이고, 특히 평판·사회진출도는 배점이 총 110점 인데 평판점수가 85점을 차지합니다. 이 평판도 정성평가 85점 만점에 우리 학교는 6

< 간서명 란 >

의 장



점을 취득했습니다. 이 점수는 평판 점수만 놓고 보면 20위권 내 대학에서 제일 낮은 점수입니다. 자표 7페이지에는 본교의 각 지표별 취득한 점수와 순위를 전년도와 대비해서 등락 표시를 한 것 입니다. 교육여건 및 재정이 7단계 하락한 19위, 교수연구가 4단계 하락한 16위, 국제화가 1단계 상승한 38위, 평판 및 사회진출도가 9단계 하락한 24위입니다. 9페이지는 1위-10위까지 대학, 11위-20위까지 대학들의 4개 영역의 취득점수분포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일 밖의 모형이 만점 모형이고, 검은선이 우리 학교 모형입니다. 우리 학교의 평판 사회진출도 부분은 타대학에 비해 안쪽으로 치우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뒷장 10페이지는 글로벌 대학평가 순위 및 대학특성별 평가순위입니다. 이공계중심 대학순위에서 아주대는 5위로 나타났습니다. 11페이지에는 이번 2009년도 중앙일보 사회평판도 조사를 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유롭게 얘기를 하도록 하시고, 오늘 다들 오셨으니까 의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학칙개정(안)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총 5가지 학칙개정(안)이 있습니다. 먼저 약과학연구소입니다. 약과학연구소는 전문화 연구기관으로 신설을 요청하는 것이며, 현재 약학대학설립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과학연구소 신설은 전문화 연구기관으로 19페이지 기구표 연구기관에 약과학연구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현재 약학대학 설립 가망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우리 대학에서도 약학대학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설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5일~20일 사이에 최종 약대설립 계획이 공지가 된다고 합니다. 11월 하순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12월 초순에 평가를 실시하여 12월 내에 약학대학 선정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의장 이일영 : 경기도에 100명이 배정되었습니까?

간사 김근태 : 네, 총 390명 중 경기도에 100명 배정입니다.

의장 이일영 : 강력한 후보가 우리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원대가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약학관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원대, 한양대, 한국외대, 동국대(일

< 간서명 란 >

의 장



산), 카톨릭대를 포함해서 7~8개 대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명 정원 요청으로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에 100명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순수 증원이 아니라 자체조정을 통한 증원이 된다고 합니다.

의장 이일영 : 경원대, 한양대 등 경쟁 대학들이 있는데요. 약과학연구소 신설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근태 : 그 다음은 경영대학 금융공학부 신설입니다. 6월초 교무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것이며, 201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 15명 정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별표5 학사과정을 보시면 금융공학부, 금융공학전공, 학위명은 금융공학사로 표기가 됩니다.

의장 이일영 : 영어로 강의하나요?

간사 김근태 : 그전 아닙니다.

의장 이일영 :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금융공학부가 경영대학인데요, 금융경영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지 공학이란 이름을 정해서 공대처럼 비취지게 만들었나요? 나중에 학위도 경영학사가 아니라 공학사로 나가잖아요. 학문적인 체계를 다루는 대학에서 경영학사와 공학사 구분을 안 하는 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의원 오상탁 : 금융공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식 학문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공학이 근래의 새로운 학문분야로 대두되어 아주대 이외에도 전공명칭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렇게 되었다면 기존의 졸업생들과 내부 교직원들에게 그런 취지를 설명해서 대내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교육체계가 세팅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들으니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어있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 금융공학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영대 교수님이 배제되었다고 해서 교수회로 컴플레인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만 만드는 쪽에서는 공청회를 했는데 오지 않고 왜 그러느냐 하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좀 더 오픈해서 잘 알리고 하면 내부의 소란도 없고 할텐데... 이것이 경영대에서 주

< 간서명 란 >

의 장



관한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주관을 했죠?

간사 김근태 :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공문으로 진행과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와서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쪽 진행된 일련의 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단독으로 한 경우와 공동으로 한 경우 구분이 되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정원은 경영학부 20명, 자유전공 20명을 감축하여 40명을 만드는 겁니까? 교수도 증원은 없습니까?

간사 김근태 : 신규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들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 몇 분이나 되나요?

간사 김근태 :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이미 학생 모집을 진행하고 학칙을 개정하겠다고 서면으로 내용을 심의 하자는 건가요?

의장 이일영 :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뭐냐 하면 모든 게 다 진행되고 나서 반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이거 이렇게 되었으니 동의해라 거의 그런식이죠. 그것에 대해서 교수들이 반발하고 말 많을 것 같으니까 closed 되어 있는데서 모든 걸 진전을 시키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 되었을 때에 공포가 되고,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죠. 앞으로 이런 측면들을 다 진행이 된 다음에 하지 말고 진행하기 전에 평의원에 가져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낼까요? 취지는 다 알고, 하는 것은 좋지만 결정단계 이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근태 : 절차상으로는 사전의견수렴, 협의 등을 거쳐 (안)이 나오면 최종 교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논의 결정을 하게됩니다.

의장 이일영 : 이미 다 모집하고 나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간사 김근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이일영 : 수시에 다 선발하였는데 만일 여기서 부결이 되면 어찌합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교수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 다음 안전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다음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2009년도 2학기 입학정원 표기(안) 입니다. 정원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학기별로 입학

< 간서명 란 >

의 장



정원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별표6에 1학기과 변동이 없는 입학정원을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금융공학부 신설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입니다. 금융공학부 40명 신설에 따른 경영학부 20명 감축, 자유전공 20명 감축입니다. 그 다음은 특수대학원의 경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임을 고려하여 휴학기간 산정에 대한 완화 근거 신설입니다. 제32조 학칙(휴학) 제7항에 ‘특수대학원의 경우 당해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서 규정하는 특수상황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인데 휴학의 종류에는 일반휴학과 군휴학 등이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휴학이나 군휴학, 질병휴학 외에 특수하게 직장관계로 인해서 해외파견을 나가는 경우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파병을 나가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휴학기간에 산입을 하면 제적이 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특수대학원의 경우에 한해서는 각 특수대학원이 정하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평의원 일동 : 네

의장 이일영 : 감사합니다. 심의안건은 다 그대로 처리가 된 것 같고요. 논의사항은 지난번 평의원회 할 때 비전과 관련한 얘기를 했고, 여러분 혹시 참고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평의원 일동 : 네

의장 이일영 : 참고자료와 더불어 오늘 중앙일보 결과와 통합해서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근태 : 현재 아주비전 2023 계획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어 추진하기 위해 아주비전2023액션플랜수립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초에 구성이 되어서 인사발령이 났고 지난번에 위원회 전체 미팅을 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간사 김근태 : 처장님들과 각 대학에서 추천한 교수 2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무위원 또한 관련 부서의 팀장들로 광범위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일정상으로 12월말에 초안이 나오고 1~2월 수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2월말에는 최종 액션할 수 있는 사항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평의원 이해진 : 2023까지 15년 계획이잖아요. 5개년씩 1차, 2차, 3차로 해서 15년이잖아요. 사실상 요즘 5개년 계획 잡는 곳이 없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 하면 굉장히 오리무중한 계획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개년의 목표를 놓고 3개년으로 중장기 계획을 잡습니다. 특히 3개년 중에서 당해 2008년도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2009년도는 어떻게 갈 것인가, 만약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 줘야 하는데요. 2단계 2013-2018년, 3단계 2018-2023년,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2008-2013년까지 1단계만 갖고 별도로 액션 플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화하여, 조직화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인프라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조직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1단계만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근태 팀장님, 2008년도에 저희가 목표했던 게 달성되었나요?

평의원 이해진 : 2008년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리뷰 내용이 나와 주고, 그거에 따라서 보강할 수 있는 다음해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사 김근태 : 액션플랜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당연히 실행을 하고...

평의원 이해진 :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실행을 안 하려고 계획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행하려고 잡았는데 결과로 보면 작년도보다 떨어지고, 2008년도부터 1단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평가가 더 떨어졌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래놓고선 다시 주위담기 위한 그런 조직화를 한다는 것은 아주대학교 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저희 아주대학은 2008년도부터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제가 알기로는 6년 전부터 세계화를 외치면서 세계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30위권 밖에 있으면서 다시 이걸 만든다 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세계화나 이런 부분은 대학 자체로만 가지고 될 수 없어요. 재단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하고, 해외에 나가계시는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야 해요. 아주대학이 대한민국에서 서울 밑에 경기도 수원 귀퉁이에 있으면서 세계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플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재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학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동문들한테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입

< 간서명 란 >

의 장



체적으로 나와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계획이든지 재정계획이 없는 업무 계획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시간계획과 재정계획이 명확히 발현되어야 하는데, 시간계획도 두루뭉수리하고 재정계획도 아예 없습니다.

간사 김근태 : 이번에는 실행시기, 실행단계,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분명히 명기가 될 것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아주 비전과 이 부분에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사활을 걸어야 하거든요. 이번에 떨어지면 아주대학 3류대학으로 간다는 각오 하에 교수님들, 교직원분들, 동문, 재단 다 합쳐져야 합니다.

의장 이일영 : 이해진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인이 움직이지 않는데 학교가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건의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장기-중장기 계획 잡은 것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은 평의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회에는 동문도 제시고, 교수님도 제시고, 직원분도 제시고, 외부에서 아주대를 사랑하는 분도 제시요. 교수나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실행했던 부분들을 그 분들이 아닌 제3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평의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평의원회에서 잘잘못을 가린다고보다는 진도상황과 리뷰할 사항을 평의원회에서 다루고 지나갈 수 있게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은 평가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의장 이일영 : 네, 좋습니다. 좋은 건의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 3월과 9월 그렇게 해서 중장기 비전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결정해놓죠. 여기 아마 위원들이 다 바뀌시겠지만, 이런 것을 남겨놓으면 이 뜻은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다들 동의합니까?

평의원 일동 : 네

의장 이일영 : 그러면 아예 달까지 정할까요? 언제가 좋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왕이면 조선일보 평가나 외부평가를 받는 걸로부터 15일전으로 시기를 못 박는 건 어떻습니까?

의장 이일영 : 4월, 10월 대부분 그때일거예요. 3월은 너무 학기 초이고 4월이나 10월 두 평의원회에서는 중장기 발전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유승화 :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가까이 있는 경희대, 한양대 모두 오너들이 평가에 관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나 한양대, 경희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카이스트나 서울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잘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Top5에 들어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제일 가능한 것이 10위권 안에 드는 것인데요. 요즘에 잘나가는 대학들이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입니다. 이 시스템들이 왜 잘나가는지 벤치마킹을 해 보아야 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간사 김근태 : 저희들도 평가결과에 대한 항목별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하면서 중앙일보 평가팀에게서 얘기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화 중에서 학생파견 항목이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파견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정말로 공부하러 가는 교환학생들을 진정한 파견학생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즉, 받아들여야 보낼 수 있고 보내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화 능력을 갖춘 인프라 측면에서 파견학생 수치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중앙일보 평가팀과 얘기를 하면서 놀란 내용은 학교에서 돈을 주고 보내는 어학연수도 전부다 파견학생으로 포함 시켜주고, 유치해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여름학기에 단체로 와서 한달 이내의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가는 학생들도 포함시켜 준다고 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서 진정한 국제화 지표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추진본부가 있습니까?

의장 이일영 : 기획팀에서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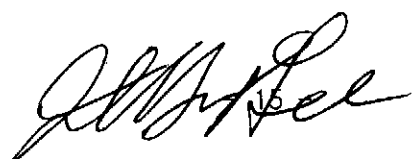
평의원 유승익 : 제가 알기로 아주비전2023 한 게 작년이었죠?

의장 이일영 : 네,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아주비전2023 선포식을 진행하면서 급하게 예산을 1억을 쓰고 캡슐 만들고 했는데, 막상 중앙일보 평가 나온 것 만 보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해진 의원님 말씀대로 공약수표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만 다 하겠다고 해냈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인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발전을 위

< 간서명 란 >

의 장



해서는 굉장히 돈이 필요한데 대우그룹이 망하고 나서 재단 측에서는 전입금도 제대로 안낸 것이 사실이지요. 당연히 재단에서 내야할 토지구입비도 무려 100억씩이나 교비에서 가져다가 쓰고, 과거에 78억 정도를 재단 빚 갚는데 썼고, 재단은 학교에 관해 재정 부분에서 전혀 도와 주지도 못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부분에 개입하시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아까 대학평의원 선출위원회 건과 관련하여, 시간이 얼마나 많으셔서 그런 걸 만드시는 모르겠습니다. 총장님께 위임하면 될것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학교의 교수로써 외부에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저희가 빨리 법인이나 학교나 동창회나 열심히 손 잡고 노력해서 잘해보았으면 합니다. 내년엔 쉽게 순위 올릴 수 있는 것들 정말 눈에 띄게 보입니다. 지금 실무위원들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실무위원들인 처장님들 굉장히 바쁘십니다. 바쁘신 그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각 대학별로 두 분의 교수님이 포함되셨지만... 일단 저는 평가결과에 대한 리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까지 해서 평의위원회에 자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근태 : 앞으로 보고자료는 미리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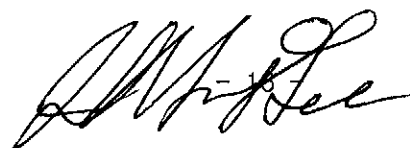
평의원 유승익 : 다음번에 원인 분석한 팀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얘기하시고요, 저희도 공부 좀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오해가 있을까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재단에서의 그 부분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중장기계획에는 재정계획이 같이 포함되어야지... 이 내용을 재단측에서도 알고, 또 우리의 살림 규모가 이것 밖에 안 되면 어디에 얼마큼 써야할지 알지, 이것을 통해서 재정계획을 잡자는 것이지 '야, 너희들 돈 갖다 부어, 동창회 얼마 좀 갖다 넣어'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계획에는 재정계획을 수반해서 꼭 써야할 때 쓸 수 있는 플랜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재단분들, 동문분들, 교수분들, 교직원분들께서 오해를 할까봐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효과 있게 쓰기 위해서 계획에는 재정계획을 같이 넣자는 겁니다.

의장 이일영 : 재원이 있습니까? 있는 재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면서 써야죠. 교비밖에 더 있습니까? 교비가지고 하려면 안 되죠. 하여튼

< 간서명란 >

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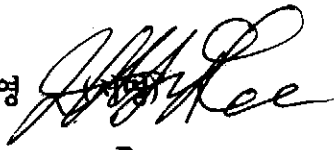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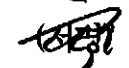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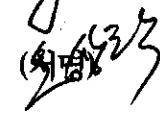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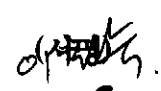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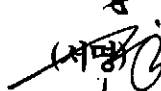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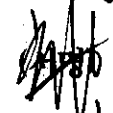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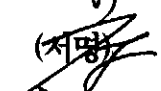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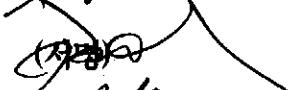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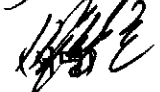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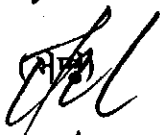

오늘 장시간 회의를 하여 벌써 4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에 한번 정도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09년 10월 15일

의 장	이 일 영	
부 의 장	이 원 희	
평 의 원	유 승 화	
평 의 원	이 순 일	(서명)
평 의 원	유 승 익	(서명)
평 의 원	오 상 탁	
평 의 원	이 화 숙	
평 의 원	최 인 규	
평 의 원	김 찬 영	
평 의 원	김 관 균	
평 의 원	이 해 진	
평 의 원	박 상 호	
평 의 원	박 윤 규	
간 사	김 근 태	
기 록	진 성 호	